

7월 2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9,000도 안늦었다" 막판 뒷심	<p>미 증시가 차익매물을 던고 강보합권을 유지했음. 다우지수가 9,000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추가상승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이 차익매물을 소화시키며 뒷심을 발휘했음.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23.95포인트(0.26%)오른 9,093.24로 마감, 연중 최고기록을 경신했음. S&P500지수도 2.97포인트(0.30%) 상승한 979.26으로 장을 마쳤음. 반면 11일 연속 상승세를 질주해온 나스닥 지수는 7.64포인트(0.39%) 물러선 1,965.96으로 마감했음. 어제 장마감후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 증시는 장중반까지 숨고르기를 보였음. 최근 9거래일간 다우와 S&P지수가 11% 오를 정도로 단기 급등한데 따른 경계매물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음. 그러나 실적개선에 고무된 투자자들의 사자 주문이 증가하면서 '전강후약'의 양상을 보였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다우지수가 9,000을 넘어섰지만 국채나 현금성 자산보다는 여전히 주식투자가 낫다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장은 연준이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를 점차 줄이고 있다고 밝혀 금융시장 안정감을 확산시켰음.</p>
유가 배럴당 68달러 돌파	<p>증시상승과 달러화 약세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8달러선을 넘어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89센트(1.3%) 오른 68.05달러로 마감했고 최근월물 마감 가격기준으로 이달 1일 이후 최고가격임. 최근 상승세에 따른 경계매물로 장중 66.46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가도 동반 상승했음. 이로써 WTI는 이번 한주간 7.1% 상승,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음.</p>
중은행, 영국 모기지시장 공략 본격화	<p>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자산규모로 세계 3위인 중국은행(Bank of China : BOC)이 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종전 영국내 화교를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해 왔던 중국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소매금융시장에서 HSBC나 바클레이와 맞먹는 명성을 쌓겠다는 전략이라고 FT는 전했다. 영국 모기지 브로커(알선업체)들은 "이같은 금리 조건은 시장내 최고 수준"이라며 "중국은행은 필시 다른 방법으로 영국 모기지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제목	주요 내용
소비자심리 7년만에 최고..낙달연속 상승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체감도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석 달 연속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견히지 않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경기체감도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106)보다 3포인트 상승한 109를 기록하며, 지난 200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경기상황이 좋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정제마진 축소..하반기 석유제품 수출 반토막”	2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수출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5% 감소한 106억6,600만달러로 예상. 물량 기준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2.9% 감소한 1억6,200만배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조사.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47.7% 감소한 94억4,500만달러였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하반기 석유제품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이유는 악화된 정유사의 정제마진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임
삼성전자 "하반기 3조 5,000억 이상 투자	이명진 삼성전자 IR팀 상무는 "올해 연간 시설투자액은 작년 규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시설투자 규모는 13조원 규모.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3조원을 시설투자에 집행. 삼성전자는 지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계획임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최소 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이 상무는 "연결기준으로 상반기 투자는 반도체와 LCD가 6대 4 비율로 투자됐다"고 밝혔음. 본사 기준으로 상반기 총 1조5,000억원이 투자됐고, 이중 반도체에 9,000억원, LCD에 4,000억원이 각각 집행됐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